

격려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무더운 8월, 이 폭염 속에서도 물러섬 없이 정진하고자 모인 대학생 불자 여러분의 열정을 찬탄하며, 더불어 제1회 Young Buddhist Camp(YBC)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경주하면 천년고도 신라가 떠오르고, 신라하면 삼국통일을 이끈 화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광스님이 내린 세속오계로도 유명한 화랑은 당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조직이었지만, 심신수련에 머물지 않고 삼국통일을 꿈꾸었습니다.

이들이 삼국통일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목표와 신념이 뚜렷하고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사람을 바꾸고, 신념은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도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꿈꾸지 않는 청년은, 도전하지 않는 청년은 젊음의 특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꿈꾸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고민하기 보다는 ‘현실’에 끌려가기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에만 매몰돼 과거 학문의 전당이었던 대학이 취업의 창구가 돼 가고 있고, ‘진리’를 찾기 보다는 ‘실리’를 좇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 불자들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고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좌선(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향점을 찾았다면, 지금 당장 정진하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 시작하고 목표를 이를 때까지 끈기있게 실천하십시오.

싯다르타 태자가 부처를 이룬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명상했으며, 정진했기에 이룬 성불인 것입니다. 이는 화랑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며 자신을 단련하고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학생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 불교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인류의 미래입니다. 천년고도 신라, 신라인의 숨결이 가득 배어있는 이곳 경주에서 화랑들이 꿈꾸었을 미래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즐겁고 활기찬 제1회 Young Buddhist Camp(YBC)가 되길 불보살님 전에 발원합니다.